



## *리베르소의 이야기 전시회*

### **1931년부터 이어져 온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

예거 르쿨트르가 탄생 90 주년을 맞은 전설적인 타임피스, 리베르소의 역사를 기리는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리베르소의 이야기(Reverso Stories)’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올해 여름 상하이를 시작으로 이후 파리에서 개최됩니다.

1931년, 폴로 스포츠의 격렬한 움직임을 건디는 손목시계로 탄생한 전설적인 리베르소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완벽한 구현이 돋보이는 시계는 곧 원래의 용도를 뛰어넘어 다양한 트렌드세터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형태와 기능이 온전히 조합된 독특한 회전 케이스와 순수한 아르데코 라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손목시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의 이야기 전시는 타임피스의 특별한 디자인에 담긴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세계를 네 가지 테마를 통해 선보이며 시간을 초월한 모던한 매력을 지켜온 90년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 **네 가지 테마로 소개하는 영원한 이야기**

이번 전시는 예거 르쿨트르 컬렉션의 오랜 문서와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카이브 자료, 1931년 최초의 모델부터 최신 모델인 리베르소 트리뷰트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이정표가 되어 준 리베르소 시계를 통해 리베르소의 기원을 소개하는 **아이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또한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 내부를 공개하는 특별 제작 영상을 통해 장인과 워치메이커들이 직접 리베르소의 모든 제작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타일과 디자인의 이야기**는 리베르소의 미학적 기원, 아르데코에 대해 다룹니다. 방문객들은 아르데코 디자인의 원칙을 따르는 독창적인 직사각형 케이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원래의 목적인 회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정교하게 큐레이팅된 남성 및 여성 타임피스들은 90 년의 세월이 흘러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리베르소가 겪어온 스타일의 변화를 선보입니다.

이후 전시회의 심장부로 발걸음을 옮긴 방문객은 예거 르쿨트르가 미국인 아티스트인 마이클 머피(Michael Murphy)에게 의뢰한 *스페이스타임* 설치 작품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이클 머피는 이 작품을 통해 물리적 공간인 3 차원과 시간의 공간인 4 차원 사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그는 고전적인 예술 제작 기술과 디지털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2 차원 이미지를 공중에 매달린 3 차원 모빌로 제작하는 온전히 새로운 공식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아나모픽 작품은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 여러 모양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형태 혹은 매우 체계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스페이스타임*의 매력은 작품을 돌아다니며 관람하는 주관적인 경험에 있습니다. 관람객은 시선을 옮기면서 무작위적으로 펼쳐졌던 혼돈의 광경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임피스의 모습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이클 머피는 고유하고 독특하며 매혹적인 방식으로 시간 측정 및 위치메이킹의 아름다움과 정확성을 포착합니다.

한편 **혁신의 이야기**는 기술 발전을 향한 예거 르쿨트르의 영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리베르소가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회전이 가능한 케이스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부터 1931 년 특허를 획득한 르네-알프레드 샤보의 천재적인 디자인까지, 이번 이야기는 하이 위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최초의 직사각형 미닛 리피터, 독창적인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와 자이로투르비용, 더블 페이스의 발명과 새로운 소재 사용 등 수많은 기술이 집약된 타임피스는 올해 출시된 네 개의 다이얼을 갖춘 리베르소 콰드립티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전시의 마지막은 **장인정신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에나멜 장인, 보석 세팅 장인, 인그레이빙 장인, 기요세 장인들의 기술을 향해 찬사를 보내며 이들이 어떻게 리베르소에 특별한 메시지와 예술적 표현을 최대한으로 담아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Amelia Earhart)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General Douglas MacArthur)이 착용했던 역사적인 시계를 비롯한 오늘날의 하이 주얼리 및 미니어처 페인팅 모델에 이르는 리베르소 시계들은 각각의 특별한 주인들에 대한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질 미래를 그려냅니다.



리베르소의 이야기 전시회는 2021년 7월 9일부터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하이 모던 아트 뮤지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